

다시 불붙은 금리 경쟁... 반년 만에 3%대 예금 등장

기준금리 인하 기대 꺾여...저축은행보다 높아

지난달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9조 가까이 급증

주요 은행 예금 상품의 최고금리가 약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다, 4분기 대규모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권 금리 경쟁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p 높였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 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준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다만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도 최고금리가 2.89%로 3%대에 육박한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들은 이달에만 이미 서너차례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인상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

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과 비교해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솔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엔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그쳤다. 은행 예금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

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05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역자원 활용 문제 해결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

시, 내달 5일까지 모집

광주시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등 총 4개 분야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내 소재한 기업 중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한 기업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분야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문교육, 경영·노무 상담(컨설팅), 판로지원 행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일 센터에서 마을기업 모집 관련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회격차 해소 앞장”

광주은행,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전 은행장이 참석해 광주은행의 발전취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지역 금융의 역할과 미래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역대 은행장들은 “SI 금융 확산,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청년층 금융 격차 확대 등 금융산업 전반이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과 제도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이 지역 은행의 핵심적인 가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이 5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의 신뢰와 역대 은행장님들께서 닦아주시기 기반 덕분”이라며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지역과 고객을 중심에 두는 광주은행의 금융철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본은 더욱 단단히 지켜 '새로운 100년 광주은행'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은행 영업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오픈뱅킹·마이데이터서비스 오프라인 확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타 영업점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이체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티·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

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지난 2022년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려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과당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산화 기자 goback@

농협 광주본부·광주교통공사

장애인복지회에 쌀·쌀국수 등 전달

농협 광주본부는 19일 광주교통공사와 함께 광주행복장애인복지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한 공동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수훈 광주시위원을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통공사는 쌀 400kg을, 농협 광주본부는 쌀국수 500개를 준비해 장애인복지회에 전달했다. 두 기관은 이번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물론,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쌀로 만든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이승훈 기자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텍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적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폭한도 거뜰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완성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를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